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5. 23.(목) 14:00 < 5. 24.(금) 조간 > 배포 2024. 5. 23.(목)

프랑스 경제사절단과 양국 경제산업협력 강화방안 논의

- 프랑스 경제인협회(MEDEF)와 에너지 전환, 항공·우주 등 첨단산업협력 논의
- 한국경제인협회-메데프 간 '한-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' 발족 및 1차 회의 열려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.23.(목) 서울에서 프랑스 최대경제단체인 메데프(MEDEF)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, 항공·우주, 미래차,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프랑스 경제사절단은 프랑수와 자코브(François Jackow) 한-불 최고경영자클럽(France-Korea Business Council, MEDEF 산하) 위원장 겸 Air Liquide 회장을 단장으로 Airbus, Total energies, OPmobility 등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대표 글로벌 기업·기관 19개사 총 32명으로 구성되었다.

이번 사절단은 지난해 두 차례 우리 정상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대·강화하고, 한국경제인협회(FKI)와 프랑스 경제인협회(MEDEF) 간 새로 출범하는 '한-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'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방한하였다.

정인교 본부장은 프랑스 경제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기업의 대한(對韓) 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, 우리 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노력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하고 이들과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.

특히, 정 본부장은 면담 직후 개최된 '한-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' 축사에서 '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사상 최대치(136억 불)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00억 불을 초과하였으며, 최근 양국 간 협력이 항공·우주, 미래차,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·발전시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'고 하였다.

아울러, '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민간 차원의 공고한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, 양국 정부 간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'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상헌	(044-203-5660)
		담당자	서기관	권순심	(044-203-566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